

##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리적 지식

최병두\*

**요약:**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들이 거주 지역에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 적응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편으로 지역환경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관한 지리적 지식과 상상력을 축으로 하는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모형에 바탕을 두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 환경 적응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주거 및 주변 환경, 소비·여가시설, 그리고 의료·행정기관의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호혜적 행동(경조사 참석, 돈을 빌림 등)은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TV, 인터넷, 지도' 등에 많이 의존하며, 다음으로 '같은 출신국 친구'와 '직접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심상도는 이주 유형과 지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적고 이주노동자들(특히 미등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혼자 참는' 경향이 큰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 적응 정도와 어려움은 유형별, 성별, 출신국적별, 거주지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차이에 적합한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외국인 이주자, 지역사회 적응, 지리적 지식, 지리적 상상력, 심상도

### 1. 서론

이른바 지구-지방화과정 속에서 국제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이제 외국인 이주자들을 흔히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은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기 보다는 이주 유형별로 일정한 여건을 가진 지역들에 우선 정착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로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도시 공단주변이나 도시외곽의 저소득층 지역,

지방의 공업도시 등에 밀집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대도시들이 인근 지역의 대학 주변에 밀집하는 경향을 가진다. 일정한 과정을 통해 입국하여 일단 정착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본국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의 이주를 주선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으로 이주자들이 누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외적 여건들과 이주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개인적 조건들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bdchoi@daegu.ac.kr

물론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떤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가는 상당히 개연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국내 유입은 특정 목적, 즉 취업, 결혼, 유학 등을 우선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배우자, 또는 대학교의 선택이 우선이고, 이들이 소재하는 지역의 외적 환경이나 지역 주민들의 특성은 부차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와 같은 기본 목적의 수행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해 정착하게 된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불가피하게 적응하면서 지역 주민들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장기체류(특히 결혼이주자의 경우 영구적 정착)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일정 지역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은 거의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특정 지역에 정착하게 되며, 정착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생활양식과 한국어 구사 능력의 미흡 등으로 지역 환경이나 주민들과 접할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관한 학습의 기회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과거 본국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존하여 새롭게 접하게 된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에 대한 지리적, 사회적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에 일단 정착한 후 이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새롭게 접하게 된 지역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또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들은 정착하게 된 지역사회에 관한 지리적 지식과 상상력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는 이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적응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리적 지식의 형성, 나아가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식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와 개념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다음 특성별(특히 이주유형별)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 환경에의 적응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적응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정보의 획득과 이에 관한 상상력을 분석하고, 끝으로 이와 같은 지역사회 적응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인식과 해결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 사이 6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근거한다.

## 2.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정착: 개념적 고찰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이주과정과 배경, 정착 및 이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한 연구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의 유입 및 거주 과정에 따른 사회문화적 측면들을 부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이나 개념적 접근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로 국제이주와 정착에 관한 접근 방법 또는 이론에 관한 논의들은 우선 이주자들의 개인적 행위를 우선하는가, 또는 이주의 배경에 관한 구조적 측면을 우선하는가에 따라 행위중심/구조중심이론으로 구분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와 구조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행위자 개인이라기보다는 사회집단, 조직과 단체, 혹은 사회적 연결망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계중심적 방법론이나 거시 및 미시 구조적 접근을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과정에서 송출국과 유입국간에 형성되는 이주체계에 체계중심적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설동훈, 2000; 전형권, 2008; 박배균, 2009 등). 이러한 연구방법들에 관한 논의는 결코 거부되거나 무시될 수는 없지만, 국제 이주와 정착

과정은 국제적 공간 이동과 국지적 지역사회 생활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 즉 이 과정에 내포된 지리적 측면을 흔히 간과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우선 이들의 공간분포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 유형별 외국인 이주자들의 전국적 분포 또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내 행정구역별 분포에 관한 고찰(예로, 이희연·김원진, 2007; 안영진·최병두, 2008)에서 출발한다. 전국 또는 대도시 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는 분포의 특성 변화를 통해, 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주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거나(정연주, 2001), 외국인 집단주거지역의 사례연구로 이어져 '도시 내부의 국제화된 지구'의 형성 여부를 고찰하거나(최재현·강민조, 2003) 또는 소수인종집단의 주거지 분화현상을 설명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손승호, 2008). 특히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각 지역이 가지는 외적 환경의 특성(예로 산업구조)과 더불어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정보의 누적과 연쇄 이주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이 형성·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와 그 특성에 관한 고찰, 그리고 이에 근거한 외국인 이주자 집중 분포지역에 관한 개별 지역의 주거지 또는 경관에 관한 연구는 이들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결과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물이 미비한 것은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지역별 기초통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보는 그 동안의 사회적 시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은 대부분 단기체류자로 정주인구가 아니며, 따라서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적었기 때문이다(박세훈 외, 2009). 뿐만 아니라 지리학 측면에서 보면 그 이유는 학문적 접근방법의 한계, 즉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로 간주되었고, 공간적 또는

개별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관한 또 다른 지리학적 접근 방법은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 관한 구체적 연구이다. 위의 접근 방법이 통계자료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 또는 비교적 넓은 지역 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적 분포에서 출발하여 개별 지역에 관한 연구로 나아간다면, 후자의 연구 방법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한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자료의 직접 수집에 근거하여 이들의 일상생활 장소나 지역 활동 공간, 그리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지역적 경관과 조직 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장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 초기단계에서부터(예로, 정수열, 1996)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예로 고민경, 2009). 특히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이들의 지역사회 생활의 장소성이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이해에서 나아가, 이들이 해당 지역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예로, 정건화, 2005; 오경석·정건화, 2006), 또는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최병두, 2009a)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도 물론 개별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외국인 밀집지역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개념적,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할 수 있다. 예로 조현미(2006)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초국가적 이주를 통한 "특정 지역 내의 이민족의 유입은 기존의 지역경관과 지역주민의 정체성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사센(Sassen, 199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도시의 중심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중추기능을 보완하는 주변 지역에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에스닉 커뮤니티'로 불리는 이러한 지역의 사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과 같은 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오늘날 에스닉 커뮤니티는 스미스(Smith, 1998)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below)가 실현되고 있는 장소”로서, “에스닉 네트워크의 거점 혹은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러한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장소는 다시 강한 흡인력으로 에스닉 집단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조현미, 2006, 540).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이러한 개별 지역 연구는 지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한 특정 지역에서 형성된 사회적 조직과 생활세계의 특성은 최근 사회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등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주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예로, 김은미·김지현, 2008; 김현미, 2009). 지역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연구들 가운데 하나는 “이주란 거주지역의 이동, 즉 ‘지역’ 문제가 본질적으로 내재된다”고 주장하는 김혜순(2009)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주해 갈 곳의 결정은 이출지와 이입지의 지역으로서 장소적 특성이 결정적”이며, 특히 “이주자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인적, 사회적 자본이 이입지역 및 지역밀착성을 결정”한다고 주장된다. 특히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 밀집 지역을 ‘다문화생태복합체’(ecological complex)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조현미(2006)와 김혜순(2009) 연구의 공통점은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을 각각 ‘에스닉 커뮤니티’ 또는 ‘다문화생태복합체’로 개념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개념화의 기본 근거를 시카고학파의 도시생태학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즉 조현미(2006)는 미국 시카고학파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이민자들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다수 원주민들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부조를 받기 위하여 민족적인 공통성을 연계로 특정지역에 집주하여 에스닉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김혜순(2009) 역시 1920-50년대 미국의 도시연구에 적용되었던 인간생태학에 근거하여 다문화생태환경의 구성을 4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4가지 요인은 지역주민(population: 지역의 원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사회인구 특성 및 내국인의 다문화 감수성), (지역)사회

조직(organization: 정부부문과 언론, 관련 전문가, 연구집단, 기업, 시민단체, 상업조직 등), 도시환경(environment: 입지, 경제, 산업배경, 주거환경, 이주정주 중심 정도), 그리고 기술적 요인으로서 전문가(technology: 지역사회의 가용 전문 지식수준과 활용 정도로 다문화관련 지식의 영향력) 등이다.

이러한 다문화생태환경의 개념은 특히 도시생태학자, 던컨(Duncan, 1959)에 의해 POET 모형으로 정형화된다(그림 1). 이 논문에서는 이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를 포괄적으로 논하지는 않겠지만, 이 모형을 외국인 이주자 밀집지역에 관한 분석이나 이러한 지역의 개념화에 원용할 경우 우선 연구 대상의 경험적 현상을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각 요인들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며, 각 요인들 간의 구분도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강대기, 1987, 46). 이 모형에서 보다 근본적 문제는 지역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적 차원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예로, 이 모형은 외국인 이주자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지역정보의 학습과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지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리적 지식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생활의 사회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켜나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각 요인들을 범주로 우선 구분하여, 지역을 구성하는 자연 인문 환경(기후, 지형, 입지, 문화, 역사, 경제, 산업, 교통과 통신 등)과 개인/집단으로서 지역주민들과의 상호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지역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외국인이주자들은 생활과정에서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정보학습과 지리적 상상력을 통해 지리적 지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을 영위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P), 지역환경(E), 그리고 지역정보 학습(L) 및 지리적 상상력(I)으로 구성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 정착 모형(PELI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2).

〈그림 2〉에서 제시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 정착모

형은 한편으로 지역환경 및 지역주민과의 외적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이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지리적 의식과 가치, 지식,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정보 학습은 정형화된 언어로 표현된 ‘형식적 지식’의 습득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관련 서적 뿐만 아니라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언어구사능력을 전제로 한다. 지리적 상상력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존에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공간적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공간적 현상들에 대한 객관적 인지뿐만 아니라 느낌이나 가치 등의 주관적 의미와도 관련되며, 나아가 이주자 개인의 사회공간적 정체성과 존재론적 안전감 형성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지리적 상상력 가운데 외적 공간환경에 대한 객관적 인지는 심상도 분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정현주, 2007).

그러나 이 모형을 통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분석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외국인 이주자의 (밀집)지역은 폐쇄된 단위지역이 아니라 지구-지방화과정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개방된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상호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연계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며, “더 이상 고립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부분으로” 인식된다(조현미, 2006, 542).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 거주 지역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생태요인적 분석이나 민속지적 접근방법론을

벗어나서 다문화주의, 초국가주의, 탈식민주의, 범세계주의 등과 결합하게 된다. 즉 “이질적 문화의 공간적 네트워크는 다문화주의와 초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적 조류를 만들고 있다. …… 초국가주의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이민이 발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두 사회가 하나의 사회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현상”을 설명한다(최재현, 2007, 3; 또한 윤인진, 2008, 7 참조).<sup>2)</sup> 그러나 초국가주의적 특성에 관한 지나친 강조는 “다양한 초국적 이주자 집단 및 그들의 상이한 경험을 등질화할 수 있고, 이주자들이 국지적 공간에 뿌리내리는 지리적 과정을 간과할 수 있으며, 초국가주의에 있어서 국가정부나 기업과 같은 제도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박경환, 2009, 93).

따라서, 둘째 이러한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 등에 기초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나 탈영역화에 관한 강조에서 다시 개별 지역에서의 정착 과정에 관한 관심을 다시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물론 여기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뿌리내리기(즉 재영토화)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 방법론에 바탕을 둔 지역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배균(2009)은 제습 등(Jessop, *et al.* 2008)이 제시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TPSN 모형에 기초하여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공간적 차원과 결합하며, 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공간적 관계는 관계들의 국지화 및 지리적 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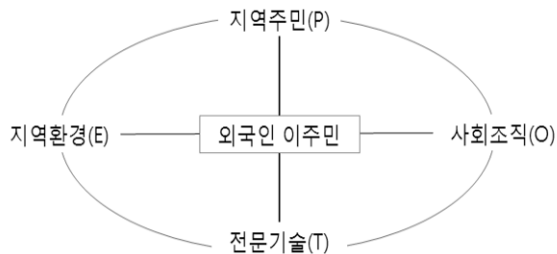


그림 1. Duncan의 (다문화)생태복합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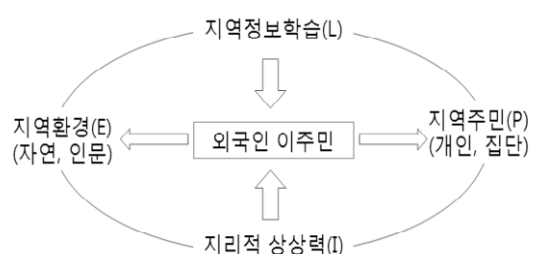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 정착 모형

리내림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장소(place),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안/밖을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영역(territory), 연결성과 결절점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수직적으로 계층화된 차별화를 통해 나타나는 스케일(scale)과 같은 4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지역사회 연구는 제시한 4가지 핵심적 사항들 가운데 네트워크와 스케일에 우선적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이들을 전제로 한 장소와 영역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와 스케일을 강조한 연구들(최재현, 2007; 이용균, 2007; 정현주, 2008)은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 정착과정에 관한 새로운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실제 지역 정착과 직접 관련된 또 다른 두 차원, 즉 장소와 영역을 명시적으로 부각한 연구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장소와 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로 형성된 혼성성의 도시공간과 정치를 주제로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에서의 탈정치화된 민족성과 재정치화 과정을 연구한 박경환(200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탈식민주의적 정치와 관련하여 [일정 지역 내에 형성된] 혼성성은 담론의 경계에 도전하고 권력이 내재화된 역사와 문화를 비판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기술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초국가주의가 제3자의 입장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탈식민주의는 외국인 이주자의 주체적 입장에서 지역사회 생활과 지역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에 관한 연구는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 자체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장소와 이의 영역성은 이들 자신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지역성의 관점에서도 접근될 수 있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과 이들이 유입된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

역 생산성의 성장/쇠퇴,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 통치성에 있어서 통합/갈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 및 정치의 차원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혼성에 따른 사회공간적 기능의 체계성과 관련된다. 다른 한편,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과 정착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외적으로 개방 또는 폐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 구성원들(또는 세부 지역들) 간에 어떻게 내적으로 포섭 또는 배제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사회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뿐만 아니라 지역에 유입·정착해나가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 3.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 1) 지역의 외부 환경 적응

외국인 이주자들은 정착한 장소에서 새롭게 주어진 여러 환경적 요소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지역 환경적 요소들은 기후 등의 자연환경, 주거시설이나 주변 환경, 생활에 필요한 소비 및 여가시설,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료시설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정착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들 외에도 많은 요소들과 접하게 되지만, 이러한 4가지 사항들은 이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지역사회에 밀착시켜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적응 또는 활용해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후 및 여타 자연환경은 불가피하게 적응해야만 하는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자연환경 자체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즉 관련 설문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지역의 기후 및 자연환경에 대해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렇다’ 49.5%, ‘매우 그렇다’ 15.9%로 응답하여,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 5점 척도 값으로 보면, 전체 평균은 3.76이고, 전문직 종사자가 3.87로 가장 높았고, 결혼이주자는 3.61로 가장 낮았다.<sup>3)</sup> 지역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광주, 대구지역 이주자의 적응도가 조금 더 높았다. 한국의 기후 및 자연환경은 온대지역에 속하여 일반적으로 적응하기 어렵지 않고,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도 한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유입되었거나, 온대 기후지역의 국가에서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기후 및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생활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 시설 및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시설 및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11.8%, ‘그렇다’ 48.6%이며, 5점 척도 값으로 3.67을 나타내어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이주자가 가장 높은 3.86, 외국인 유학생이 3.75로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결혼이주자는 3.54, 이주노동자는 3.59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비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주변 환경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자유롭게 주거 이전을 할 수 있는 반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소비 수준이 낮고 주거 이전도 가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

이라고 하겠다.

외국인 이주자의 주거 시설 및 주변 환경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광주의 외국인 이주자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 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별 지역별 교차분석을 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의 적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서울 지역의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은 다른 지역의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교육직과 경영 회계직에 종사하는 고소득 업종의 외국인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주거 및 주변환경에 대체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적별로 살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중국 유학생의 적응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인 유학생이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올림픽 개최 등 출신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이들의 주거시설과 주변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거주지역 주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비 및 여가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 10.0%, ‘그렇다’ 37.6%, ‘보통’ 40.6%로 대체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5점 척도 값으로 3.45를 나타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이주자가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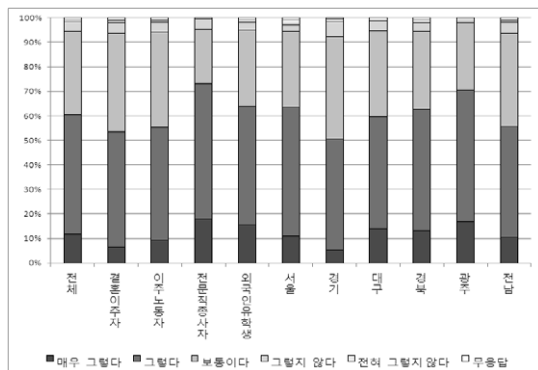


그림 3. 자연환경 적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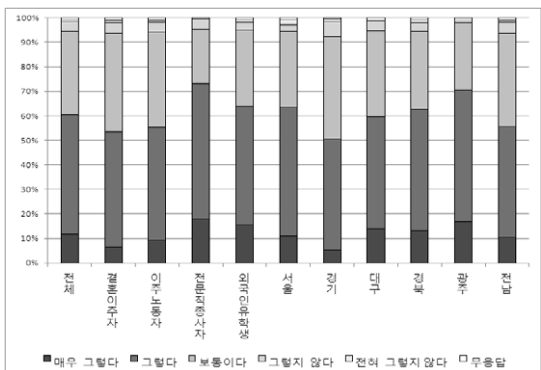


그림 4. 주거시설 및 주변환경 적응 정도

동자 3.52였고, 외국인 유학생은 3.38, 결혼이주자 3.3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낮은 것은 의외이지만 유학생생활에서 소비 및 여가시설 이용 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역으로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주자들이 지역의 소비 및 여가시설의 이용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 면 물으면 되니깐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말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 한번은 한국말로 거의 못할 때 버스를 타고 경산 시장에 가다가 줄아서 진량[경산시장을 한참 지난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 했다. 거의 울면서 ‘경산시장, 경산시장’ 이라고 외치니깐 버스기사가 다른 버스로 안내해줘서 집을 찾아 왔다(결혼이주자, 일본 출신 여성, 46세, 1996년 입국, 국민의 배우자 (F-1-3) 비자).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 소비 및 여가시설 이용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다음으로 서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소비 및 여가시설 이

용에 있어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에서 긴급하게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는 의료기관의 이용이라고 추정된다. ‘의료기관의 이용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라는 설문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9.1%, ‘그렇다’ 27.9%로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이주자의 기대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잘 적응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5점 척도 값으로 3.19와 3.15를 나타내어 결혼이주자 3.18, 이주노동자 3.37보다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전자 유형들은 후자 유형들에 비해 실제 의료기관의 이용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지만, 요구 수준이 후자들 보다 높기 때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적응 정도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남 지역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외국인 이주자들이 낮은 적응도를 나타낸 것은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기대수준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충족 수준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외국인 이주자의 의료보험 실태는 결혼이주자와 전문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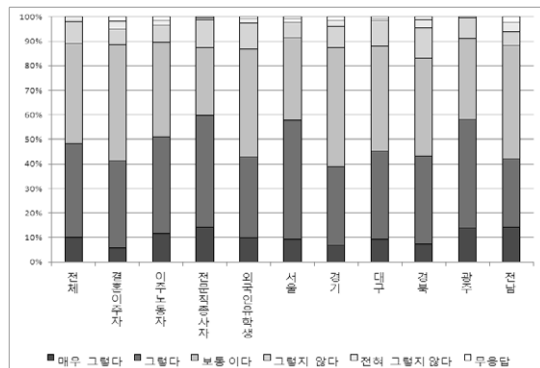


그림 5. 소비·여가시설 이용의 적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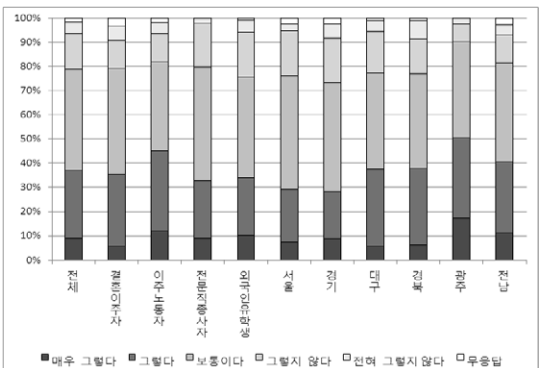


그림 6. 의료기관 이용의 적응 정도



표 1. 외적 환경에 대한 적응 정도 (5점 척도)

구분	응답자수(명)	기후 및 자연 환경	주거시설 및 주변환경	소비 및 여가 시설 이용	의료기관 이용
전체	1,533	3.76	3.67	3.45	3.23
결혼이주자	393	3.61	3.54	3.35	3.18
이주노동자	346	3.77	3.59	3.52	3.37
전문직종사자	256	3.87	3.86	3.61	3.19
외국인유학생	358	3.84	3.75	3.38	3.15

사자의 유형별로 약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심인선(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24.0%가 어떤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자가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는 90.0%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으며,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68.4%가 만족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의료환경 및 서비스의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김남희, 2004).

종합해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기후 및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적응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주거 시설 및 주변 환경, 소비 및 여가시설의 이용 순으로 적응도를 보이고, 의료기관의 이용에서 가장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각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보였는데, 전문직 종사자는 의료기관의 이용을 제외하고 각 영역별 적응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결혼이주자의 각 영역별 활동에 대한 응답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주노동자는 의료기관의 이용에서 특이하게 적응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은 소비 및 여가시설의 이용과 의료기관의 이용에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 2) 지역 주민과의 관계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어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지

역 주민들과의 관계(즉 네트워크)는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장소에 밀착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 주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의사소통, 경조사 참석,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급한 금정의 대부 등을 설문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이웃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8.6%, ‘그렇다’ 29.8%로 응답했지만 ‘그렇지 않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3.2%와 5.9%에 달하여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주자들도 상당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값으로 보면, 전문직 종사자가 2.86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3.19이며, 결혼이주자는 3.31, 이주노동자는 3.4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전문직 이주자들의 수치가 낮은 것은 이들이 대부분 선진국 출신으로 자신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웃과 의사소통을 꼭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은 자신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한글을 배우고 의도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일정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을 위하여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는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조사되었다. 예로, 김희주·은선경(2007)의 연구에서 조사된 것처럼,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한국에

와서 7~8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고 지내는 한국 사람들은 시댁 식구를 제외하고 종교 단체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남편의 친구들로 제한되어 있고, 관계의 내용도 주로 도움을 받는 수혜적인 면이 강하고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들이 대부분이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제한적이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로, 다음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심층면접 사례는 사업 및 종교 관계를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례 2]** 나는 동네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네 주민들과는 인사만 하는 정도이고, 이야기를 하거나 친하지는 않다. 하지만 한국인 사업가들과는 도움을 주고 받는다.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산다면 동네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모임에 가 본적이 없고, 오히려 이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생길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다.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은 없고, 이슬람 사원을 통해 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전문직 이주자, 파키스탄 출신 남성 27세 기혼, 2007년 입국, 기업투자(D-8) 비자).

외국인 이주자들이 이웃주민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의사소통을 넘어서 좀 더 친밀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경조사 등 모임 참석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이 점에 관하여 이주자들은 부정적 입장을 더 많이 나타내어 5점 척도 점수로 2.76을 보였다. 모든 유형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결혼이주자는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2.97을 나타내었고, 이주노동자도 2.94를 나타내었다.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가족 관계를 비롯한 주변 이웃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지역사회에서 보다는 직장에서 한국인 동료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보면,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인 이웃과 함께 하는 일 가운데 일상적 대화, 경조사 참석, 농사일 돕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이순형 외, 2006), 또한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27.8%가 이웃관계에서 경조사에 참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지역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웃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9.5%이지만,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2.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들은 모두 낮은 편이었다. 이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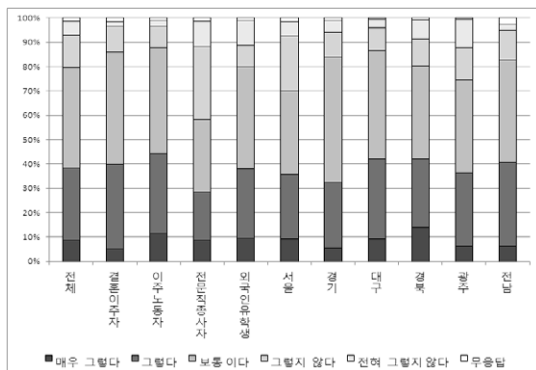


그림 7. 이웃과 의사소통의 원활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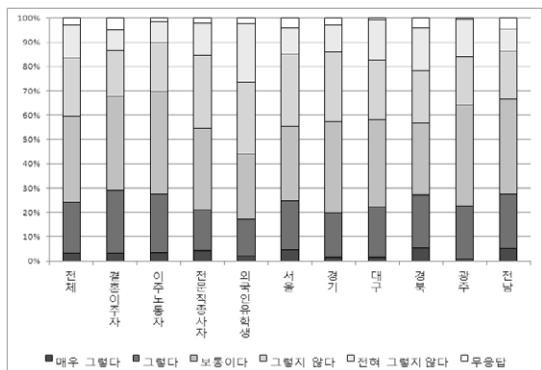


그림 8. 이웃 경조사에 참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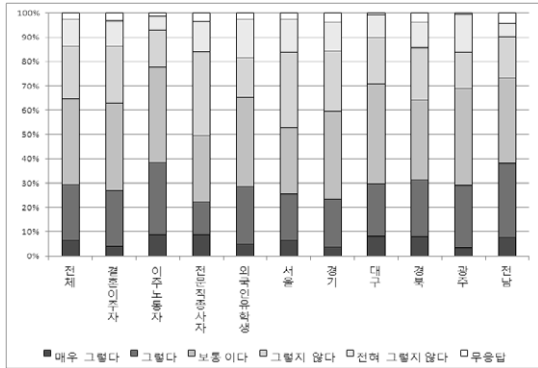


그림 9. 어려운 상황에 이웃으로부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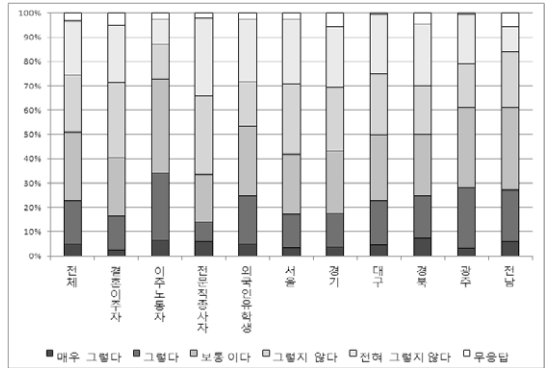


그림 10. 이웃으로부터 급한 금전 대어

동자의 지역사회 생활에서 이웃관계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2002)에 의하면, 생활용품 빌리기와 빌려주기에 응답한 비율이 24.7%,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을 주변 이웃과 의논한다는 비율이 27.7%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의 이웃 주민의 도움은 가장 낮았다.<sup>4)</sup>

지역주민들과 매우 절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전 대여관계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23.7%, '전혀 그렇지 않다' 22.2%로 부정적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에 따라 5점 척도 값으로 2.58을 나타내었다. 이 항목에서 직장 등에서 동료들과 어느 정도 금전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노동자는 5점 척도 값 3.06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자체가 별로 없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의 경우도 2.38로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금전관계 자체가 매우 친밀한 사이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족들의 통제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웃 주민들과의 금전 거래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지역은 전남, 2.89였고 다음으로 경북 2.59였으며, 낮은 지역은 서울 2.38, 경기 2.42로 수도권지역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거주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주민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종합해 보면(표 2), 이웃과의 의사소통은 3점 이상으로 다른 활동과 관계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표 2. 지역주민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5점 척도)

구분	응답자수(명)	이웃과 의사소통이 원활함.	지역주민 경조사 등에 참석함.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음.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음.
전체	1,533	3.22	2.76	2.92	2.58
결혼이주자	393	3.31	2.97	2.86	2.38
이주노동자	346	3.42	2.94	3.20	3.06
전문직 이주자	256	2.86	2.68	2.70	2.22
외국인 유학생	358	3.19	2.41	2.86	2.59

나 경조사 참석, 급하게 돈을 빌림 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웃관계가 가장 원만한 유형은 이주노동자로, 경조사의 참석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어려울 때 도움,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음의 문항들에서 모두 높은 값을 보였다. 그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4가지 활동 중 경조사 참석을 제외한 3개의 활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과의 교류와 연계망이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웃관계가 원활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이웃 간의 교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서울로 이웃과 의사소통을 제외한 3개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4. 외국인 이주자의 지리적 지식

### 1) 지역정보 학습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사물들

의 공간적 분포와 그 특성들에 관한 지식을 최소한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새롭게 정착한 지역에 대하여 과거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차이로 인해 정착하게 된 지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의 문제는 이들이 새롭게 정착한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지역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관한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 1353명 가운데 40.2%는 'TV, 인터넷, 지도' 등을, 15.6%는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 14.0%는 '직접 경험'을 통해, 11.0%는 '배우자나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1). 이러한 지역 정보 획득 방법은 이주자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결혼이주자들이 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배우자나 가족들의 도움, TV 인터넷 지도,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적별로도 약간의 차이만 있고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주자들의 경우는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 높게 나타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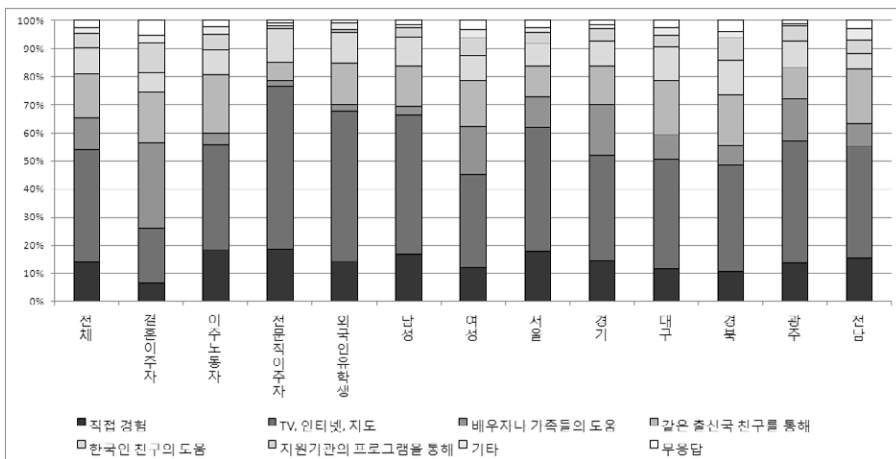


그림 11. 지역에 관한 지식의 획득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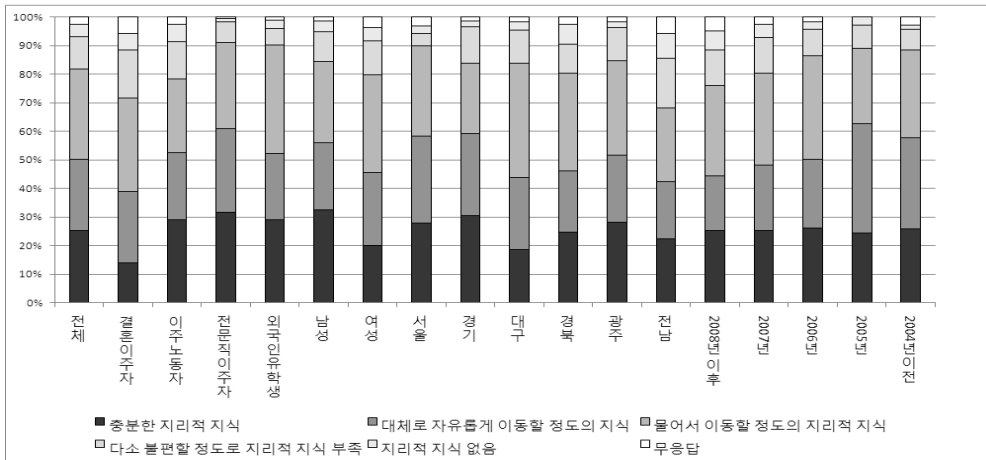


그림 12. 지역사회에서의 이동과 관련된 지리적 지식의 정도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정보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TV나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 직접 경험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직접 경험을 통해 지역정보를 획득한다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도나 TV, 인터넷의 도움으로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서울과 경기, 전남지역 노동자가 월등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의 경우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타 지역보다 같은 국적 출신과의 네트워크 교류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얻고 있다는 응답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 종사자가 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TV, 인터넷, 지도'가 5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주로 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필리핀 국적자와 예술흥행(E-6) 비자유형에 속하는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는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 가장 많이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소 교육적 수준이 낮고 취업에 취약한 이들

은 이주에 있어 동료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주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TV,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서 얻고 있었다. 분석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TV, 인터넷, 지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6.1%로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별로는 학사과정에서 TV, 인터넷, 지도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반면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대학원 유학생들은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지역 정보를 획득한다는 학생이 18.4%로 여학연수나 학사과정 유학생보다 더 높았다. 특이할 점은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는 학생은 4명(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지원기관에서 학생들이 지역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생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역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31.9%는 '물어서 이동할 정도의 지리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충분한 지리적 지식' 25.2%, '대체로 자유롭게 이동할 정도의

지식' 24.9%를 나타내어(그림 12), 외국인 이주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입국 연도와는 대체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관련된 지리적 지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충분한 지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대체로 자유롭게 이동할 정도의 지식'은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자 유형별로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혼이주자는 '물어서 이동할 정도의 지리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타 지역보다 높은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인 이주자가 지리적 지식이 높았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리적 지식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한국어 말하기 수준과는 깊은 관련을 보였다. 즉 한국어를 능숙히 구사할 수 있는 이주자는 그렇지 않은 이주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리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의 지리적 지식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문취업자는 한국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리적 지식이 높았지만 학력과 지리적 지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이주자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이동하는데 큰 제약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입국연도가 오래될수록 지리적 이동이 더 쉽지만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응답자 중 51.9%가 지리적으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나 지역 내에서는 대체로 자유롭게 이동할 지식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의 유학생이 66.6%로 가장 높았지만 제3세계 유학생들은 37.8%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국연도별로는 2004년 이전에 입국한 유학생이 '어디든지 갈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에 58.8%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 오래 생활할수록 지리적 지식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을 국가적 및 세계적 상황에 관한 지리적 지식의 정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표 3). 결혼이주자의 지리적 지식이나 지역학습에서는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 현재 사는 곳의 위치,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의 귀국 경로는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한국 내 도시와 행정구역에 관한 지식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는 지리적 지식과 지역학습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세계 속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본국으로의 귀환 경로에 대해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

## 2) 지리적 상상력과 심상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봉착하면, 기존에 자신이 가진 지리적 지식에 바탕으로 둔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표 3. 공간적 범위별 지리적 지식의 확보 정도

구분	응답자수(명)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의 대도시와 행정 구역들을 잘 알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잘 알고 있다.
결혼이주자	393	3.18	2.71	2.88	3.27
이주노동자	346	3.52	3.23	3.52	3.72
전문직 이주자	256	3.75	3.49	4.28	4.21

한다. 하비(Harvey, 1973)에 의하면, 지리적 상상력은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공간과 장소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들 주변에서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공간환경들과 관련시키도록 하며, 개인들과 조직들 간 상호작용이 이들을 분리시키는 공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지리적 상상력은 다른 장소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적실성을 판단하고, 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적 형태들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공간을 창조적으로 설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리적 상상력은 낮은 지역에서 개인의 사회공간적 판단과 이에 근거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지역적 정체성과 존재론적 안전감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지리적 상상력의 구체적 확인은 개인의 지리적 행동과 공간적 인지에 관한 의식과 더불어 심상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적 인지와 관련한 분석 결과,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위치, 시장이나 대형마트의 위치, 대중교통 노선 등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의 위치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는 2.93으로 낮게 나와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행정기관의 이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지리적 행동이나 공간적 인지는 자신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즉, 버스노선이나 시장, 백화점,

마트 등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들과 크게 관계가 없는 학교나 행정기관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노선의 인지와 관련하여, 특히 서울지역 노동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과 광주, 대구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잘 모른다'는 응답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전문직 종사자는 활동공간의 인지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위치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4.02로 가장 높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행정기관과 관공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와 비슷하게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분석 결과, '혼자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가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의 정도와 관련하여 이동할 정도의 지리적 지식은 갖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유형의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가지는 지리적 이동에 관한 개인적 능력은 자신의 지리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심상도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심상도란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을 표현한 것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지각 활동의 결과로 인지된 지식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심상도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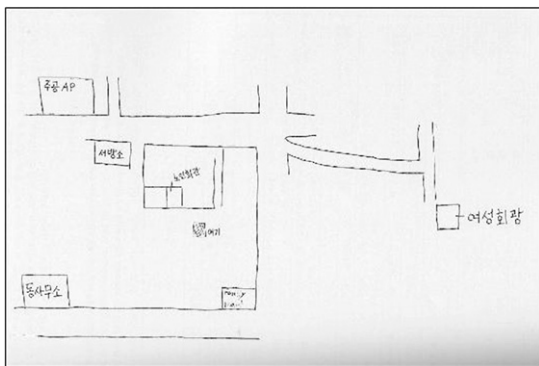


그림 13. 심상지도 사례: A(결혼이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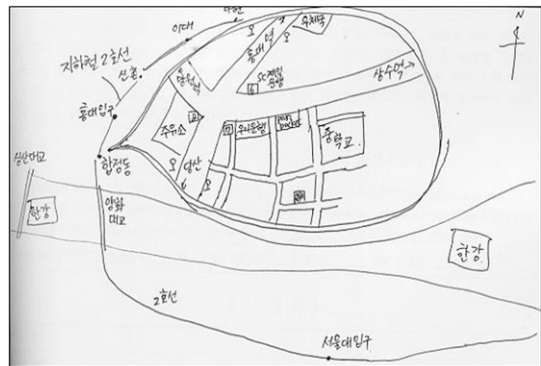


그림 14. 심상지도 사례: B(외국인 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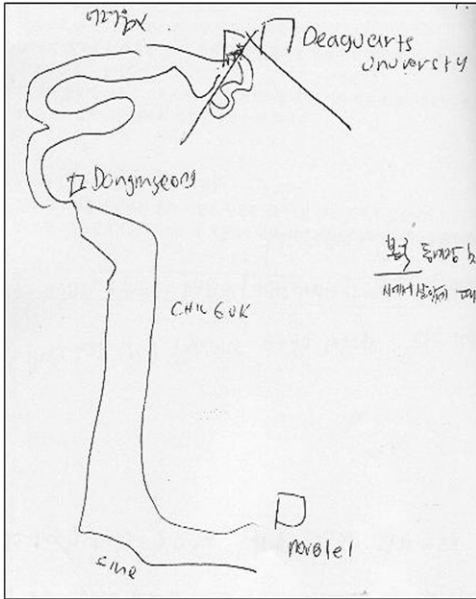


그림 15. 심상지도 사례: C(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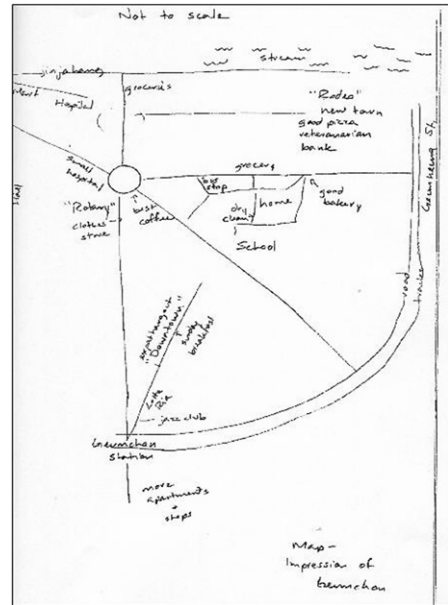


그림 16. 심상지도 사례: D(전문직종사자)

의 공간적 지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간적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형성된 공간적 인지가 어떻게 누적/수정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상도는 개인의 학력이나 거주기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학력과 거주기간 등 개인의 지각 능력과 기간이 확대될수록 심상도는 단순하고 개별적인 형태에서 점차 복잡하고 연속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그린 심상도를 분석해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한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심상도에 표기된 구체적 지형지물이나 내용의 상세함 정도를 보면, 성별이나 연령보다는 교육수준이나 소득 또는 거주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가 비슷한 수준이며, 유학생, 전문직종사자 순으로 심상도가 복잡해지고, 상세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도를 몇 개의 개별 시설들을 분리해 그린 단절형, 이들을 선형으로 연결시킨 연속형, 그리고 보다 복잡하게 망상형으로 그린 공간 분

포형 지도로 구분해 보면,<sup>5)</sup>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아주 간단한 단절형과 비교적 간단한 간선형, 연결형 심상도가 많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이주자들은 망상형이나 패턴형 같은 다소 복잡한 형태의 심상도를 많이 그렸다.

몇 가지 심상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3>은 1968년생 중국 여성으로 2008년 입국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심상도이다. 다른 결혼이주자들의 심상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소방서와 동사무소 등을 주요 지형지물로 설정하여 공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심상도를 <그림 14>의 심상도와 비교하면 활동공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좁고 세부 지역들 간 연계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은 일본에서 이주하여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심상도이다. 이 외국인 유학생의 심상지도 중 특이할 점은 방위표가 기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방위표를 생략하지만, 이 사람



은 방위표를 기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공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은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심상지도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즉 이 심상도를 그린 사람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위치한 ‘대구예술대학교’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novotel’까지 총 거리가 약 19km(도보로 약 4시간)로 매우 넓은 스케일의 공간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거주지인 칠곡에서 대구 시내로 큰 어려움 없이 쇼핑 등의 여가 생활 또는 친구를 만나러 시내로 자주 외출하는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이주노동자는 이주 전 본국(필리핀)에서도 도시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도시 중심부로의 접근에 대해 비교적 거부감 없이 활발한 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심상도는 〈그림 16〉과 비교하면 단선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전문직 이주자의 심상도로,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보다 이들의 심상지도는 보다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공간지각능력이나 지식수준이 직업이나, 교육수준과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5. 지역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신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한 지역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역환경에 적응이 어렵고 사회적 관계가 불편하며, 실제 지역에 관한 지리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참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한 문항에서, 지역사회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매우 불편하다’ 5.8%, ‘다소 불편하다’ 16.3%인 반면, ‘불편하지 않다’ 25.4%, ‘전혀 불편하지 않다’ 5.1%로 나타났다. 분명 이들의 지역사회 생활이 불편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만 함으로 반영한 응답 결과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09b).

지역사회 생활에서 불편함의 정도는 이주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그림 17). 이에 대한 결혼이주자의 응답을 5점 척도 값으로 나타내면 2.68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전문직 종사자가 2.86을 나타내었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3.19로, 지역사회 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국인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작업장에서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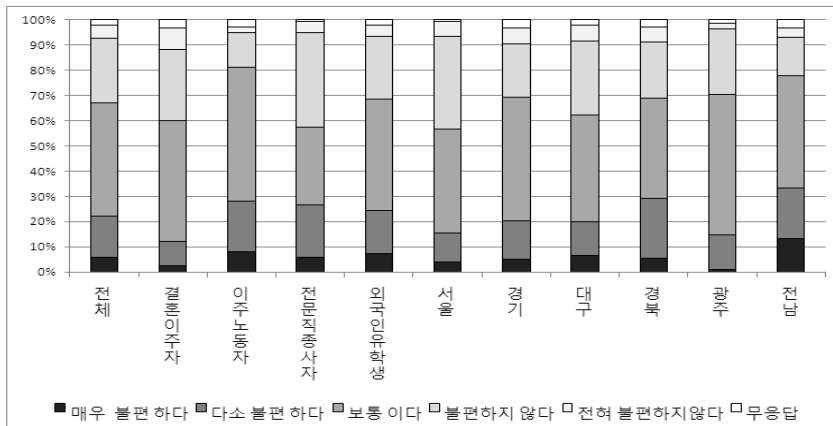


그림 17.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sup>6)</sup> 불편을 느끼는 정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나타났다. 불편한 느낌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은 2.71점의 서울이고,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3.25점의 전남이었다. 각 유형별 이주자들의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더라도, 대체로 서울 지역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불편한 느낌을 적게 받고 있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에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례 3]**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한국인은 많지만, 또한 속상한 것도 너무 많다. 그러나 사람은 100퍼센트 다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 기숙사가 안 좋다. 시끄럽다. 참지만 때로 불쑥불쑥 화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혼자 생각이지만, 한국에는 공장이 많고, 외국인들도 너무 많다. 하지만 외국인이 더러운 일, 힘든 일, 다 한다. 돈 벌어야 하니까. 미등록[노동자]이라 돈도 적게 받지만 말도 못한다. 단속이 힘들게 한다. [체류]기간이 끝나도 열심히 일하면, 계속 더 있게 해 달라 (이주노동자, 베트남 출신 37세, 2000년 입국, 섬유 공장 근무).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실제 기숙사문제, 저임금 문제, 불법체류 단속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지만, ‘불편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꼈고, 국적별로는 필리핀인이 불편함을 가장 많이 표현했다. 입국연도에서는 오히려 오래 거주한 이주노동자들이 최근에 입국한 노동자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방문취업자들은 타 유형에 비해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 보다 잘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미등록(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356명 가운데 320명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관해 응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등록 노동자는 225명, 미등록 노동자는 95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과 광주 지역에서는 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대구와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미등록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등록노동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표 4). 미등록 노동자는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불안

표 4.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합계	법적 지위		이동 어려움	주변 사람 시선	단속 불안	고용 기회 제약	임금 감소	업주, 동료의 횡포	교육 의료 불편	본국 출입, 가족 왕래	송금 불편	기타	무응답
		등록 (합법)	미등록 (불법)											
전체	356 (100)	225 (65.0)	95 (27.5)	19 (5.5)	11 (3.2)	33 (9.5)	9 (2.6)	8 (2.3)	1 (0.3)	4 (1.2)	2 (0.6)	1 (0.3)	2 (0.6)	256 (74.0)
서울	34	32	1	1	0	0	0	0	0	0	0	0	0	33
경기	61	39	17	6	3	3	5	0	0	0	0	0	0	44
대구	72	23	42	8	1	15	3	7	1	3	1	0	0	33
경북	70	38	20	2	7	6	1	1	0	0	1	0	2	50
광주	45	40	4	2	0	1	0	0	0	1	0	0	0	41
전남	64	53	11	0	0	8	0	0	0	0	0	1	0	55

주: 미등록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무응답자가 많았음.

표 5.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의 정도

	응답자수(명)	가정, 지역의 문화 적응이 어렵다.	한국말 사용이 어렵다.	원하는 곳에 이동하기 어렵다.	사람이 두려워 외출하기 어렵다.	법·제도를 몰라 어렵다.
계	1,353	3.06	3.29	2.75	2.12	3.13
결혼이주자	393	2.94	3.33	2.83	2.09	3.27
이주노동자	346	3.13	3.20	2.96	2.59	3.06
전문직이주자	256	3.09	3.60	2.52	1.76	3.01
외국인 유학생	358	3.09	3.11	2.64	1.97	3.14

표 6. 지역사회 생활에서 차별을 느끼는 정도

	응답자수(명)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계가 어렵다.	법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본인의 문화가 인정받지 못한다.
계	1,353	3.04	3.05	3.03
결혼이주자	393	3.13	2.85	2.99
이주노동자	346	3.26	3.27	3.16
전문직이주자	256	2.59	3.00	3.01
외국인 유학생	358	3.05	3.10	2.98

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제약으로,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불안을 들었고, 다음으로 이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지리적 이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는 여권을 들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 전체의 74%가 여권을 본인이 소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달리 말해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26%는 여권을 타인이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이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35.7%가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필리핀은 85.7%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선원취업 노동자들은 모두 본인이 소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산업연수,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노동자들의 20% 정도는 여권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특히 연수취업은 사업주나 한국인 직장상사가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5.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 어려움의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 항목들에 따라 조사해 보면, 우선 내용 면에서 언어 사용, 법, 제도 등을 몰라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

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많고, 이동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어려움은 전체 응답자에게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5). 문화 적응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직 이주자가 다소 높으나, 전체 유형에서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고 있다. 특히 언어 사용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크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모든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에서 공통으로 높게 나타나, 언어 사용의 어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결혼 이주자의 경우 언어 사용과 법, 제도 등에 대한 무지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며, 이주 노동자는 언어 사용, 법,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전문직 이주자는 59.4%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해 한국어 사용에 불편함을 토로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은 법·제도에 대한 무지(31.0%)로 겪는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법·제도에 대한 지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기 때문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 모두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이주노동자는 본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함과 법적 사회권리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내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지역사회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의사소통 문제이고, 다음으로 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직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지역주민들과의 유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도 전문직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출신국과 다른 자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으로 인해서 생활서비스 문제도 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 지역주민들의 차별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생활비 문제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학비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과 '환율변동'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유학생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됨을 나

타내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역사회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차별을 느꼈을 때,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혼자 참는다(29.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29.8%)',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13.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자 유형별 특징으로는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혼자 참는다'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에 전문직 종사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삶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자가 지역사회 적응에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법은 혼자 참는 것으로,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자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자의 경우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도 서툴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출신 결혼이주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80년대부터 결혼이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 여성들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자의 경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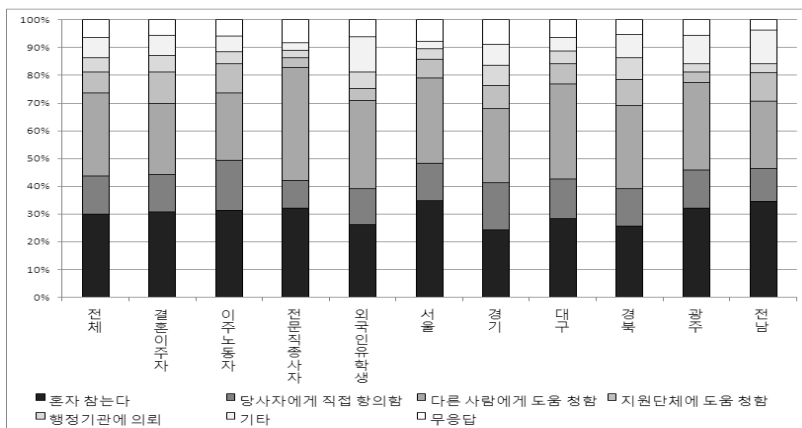


그림 18. 지역사회 어려움의 해소 방법

는 다른 출신국의 결혼이주자들에 비해 적극적인 경향을 띠는 특징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결혼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혼자 참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순을 보인다.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10.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이 혼자 참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도 그러하다. 연수취업 이주노동자의 58.1%는 혼자 참고 있었지만 비전문취업의 경우 직접항의 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비록 케이스수가 작지만 젊은 연령일수록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하거나 행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직 이주자들은 지역사회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40.6%), 혼자 참는 것(32.0%)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원 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통한 해결에 있어 전문직 이주자들의 이용도는 매우 저조하며,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혼자 참게 되는 상반되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 혼자 참는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원단체의 도움이나 행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이들을 위한 기관의 지원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의 대처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에서 도움을 청한다' 31.8%, '혼자 참는다' 26.3%,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한다' 12.8% 순으로 응답하였다. 분석지역 특징은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혼자 참는다는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대구 지역의 유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유학생이 50.9%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생활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정순 외(200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

이 한국 유학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한국어 능력의 부족'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업문제', '학비마련' 순으로 응답하였다.<sup>7)</sup>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의사소통문제, 학업문제,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유학생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6. 요약 및 결론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역사회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주 초기부터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지역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언어나 습관과 같은 문화적 차이와 같은 일반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에 관한 자연 및 인문환경에 관한 지식의 부재나 지역주민들과의 이웃 관계의 한계로 인한 장소특정적 문제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에 대한 적응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리적 지식의 형성, 나아가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들과 그 해소 방식 등에 관해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와 개념적 배경을 검토한 결과, 한편으로 지역환경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요구되며 또한 이 관계를 뒷받침하는 지역에 관한 지리적 지식과 지리적 상상력을 축으로 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 정착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모형은 지역 내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지역환경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과 이를 뒷받침하며 또한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지리적 지식과 지리적 상상력을 강조할 수 있으나, 이들에 함의된 사회공간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4가지 공간적 세부 요소들, 즉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적 모형을 전제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환경 적응도를 요약하면, 기후 및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 시설 및 주변 환경, 소비 및 여가시설의 이용 순이고, 의료기관의 이용에서 낮은 적응도를 나타내었다. 각 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직 종사자는 의료기관의 이용을 제외한 항목들에서 높은 적응도를 보였다. 반면 결혼이주자는 각 항목별 활동에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주노동자는 의료기관의 이용에서 특이하게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은 소비 및 여가시설의 이용과 의료기관의 이용에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요약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웃과의 의사소통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조사 참석, 급하게 돈을 빌릴 등과 같이 보다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이웃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원만하여, 경조사의 참석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어려울 때 도움, 급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음 등에서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5점 척도 값을 보였다. 그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는 주민관계의 4가지 활동 중 경조사 참석을 제외한 3개의 활동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역 생활에 관한 정보의 획득방식으로는 'TV, 인터넷, 지도' 등 형식적 지식에 의존도가 가장 높았고, '같은 출신국 친구를 통해', 또는 '직접 경험'을 통해,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 획득되는 개인적이고 암묵적 지식이 그 다음 순을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결혼이주자는 대체로 개인적 관계에서 형성된 지식에 의존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학력, 특히 언어구사 능력을 전제로 하는 관련 서적,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이주기간이나 성별보다는 학력과 소득 수준 등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리적 지식의 범위가 더 넓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표현한 심상도 역시 전문직 이주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복잡하고 공간 분포형 지도를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적고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물론 주관적이지만,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취업조건에 따른 거주 장소와 기간의 제한과 더불어 미등록(불법)체류의 경우 단속과 직장 이전의 한계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혼자 참는' 경향이 큰 반면, 전문직 종사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역사회 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유형별, 성별, 출신국 적별, 그리고 거주지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차이에 적합한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명시적 및 암묵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과 원주민들과의 호혜적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다문화 지역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주

- 1) 사실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들에 대한 유형별, 시군구별 원자료는 2008년에 와서야 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 연구는 대부분 개인적 관계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기초했다.
- 2) 이러한 다문화주의나 초국가주의의 관점은 초국적 이주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다문화사회에 관한 거시적 담론으로 이해되지만, 또한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정착

- 과정에 관한 구체적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이용균, 2007).
- 3)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의 기후 및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는 음식이나 기후 등의 적응에 어렵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보고서에서는 기후·날씨는 31.2%가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 4) 이와 관련하여 김남희(2004)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움을 물어본 결과 1.9%만이 이웃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와 주변 이웃과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심상도의 복잡성은 다음과 같이 형태상의 분류로 확인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표시된 주요 지형지물들의 수와 특성들로 파악될 수 있다.

부표 1. 심상도의 형태 분류

연속형 심상도	공간적 심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cross type)</li> <li>• 간선형(arterial type)</li> <li>• 간선 및 지선형(arterial and branch type)</li> <li>• 망형(netted typ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형(scattered type)</li> <li>• 모자이크형(mosaic type)</li> <li>• 연결형(linked type)</li> <li>• 패턴형(patterned type)</li> </ul>

- 6) 안미숙 외(2008)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언어문제, 고물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을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7) 이익수 외(2006)의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체류기간 중 도움이 필요한 순위에 대해서 '응급상황에 대한 도움'을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재정문제', '학사과정의 도움'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강대기, 1987, 현대도시론, 민음사.  
 고민경, 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

사.  
 김남희, 2004, 국내에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  
 김은미·김지현, 2008,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pp.1-35.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 42(2), pp.35-75.  
 김혜순, 2009, "지역기반 다문화사회통합과 달서구," 72차 21세기 낙동포럼 및 2차 열린 다문화사회포럼, 발제문(PPT 자료).  
 김희주·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pp.33-66.  
 박경환, 2005, "혼성성의 도시 공간과 정치: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에서의 탈정치화된 민족성의 재정치화," 대한지리학회지 40(5), pp.473-490.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오민지, 2009, 사회문화적 변동과 새로운 도시지역정책: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pp.19-30.  
 심인선, 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안미숙·임호·주덕, 2008, 부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과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안영진·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pp.476-491.  
 오경석·정건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pp.72-93.  
 윤인진, 2008,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문화역

- 사지리 20(1), pp.1-18.
- 이순형 · 문우경 · 최연실 · 이숙정 · 정하나 · 우현경, 2006,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35-51.
- 이익수 · 지봉구, 2006,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29(5), pp.437-454.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5,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방안.
- 이희연 · 김원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성장과 정주패턴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15-33.
- 전형권, 2006,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적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pp.259-284.
- 정건화, 2005, 근대안산의 형성과 발전, 한울, 서울.
- 정수열, 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 행태,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pp.27-42.
- 정현주, 2007, “공간의 뒷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53-68.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pp.894-913.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pp.540-556.
- 최병두, 2009a,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3), pp.369-392.
- 최병두, 2009b,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19-343.
- 최재현 · 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pp.17-30.
- Duncan, O.(eds), 1959, Human ecology and population studies, in Hauser, P. M., *The Study of Population: An Inventory and Apprais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678-716.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Arnold; 최병두 역, 1982, 사회정의와 도시, 서울: 종로서적.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s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pp.389-401.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M. P. and Guarnizio, L. E.(eds.),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in Comparative Urban and Community Research 6, Transaction Publishers.
- 교신: 최병두,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대구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4155, 팩스: 053-850-4151, 이메일: bdchoi@daegu.ac.kr
- Correspondence: Byung-Doo Choi,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Naeri-ri, Jilyang-up, Gyeongsan-si, Gyeongbuk, 712-714, Korea, Tel: +82-53-850-4155, Fax: +82-53-850-4151, e-mail: bdchoi@daegu.ac.kr

최초투고일 2009년 12월 15일  
최종접수일 2010년 3월 20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3, No.1, 2010(39-63)*

## **Local Adjustment and Geographical Knowledge of Foreign Immigrants in S. Korea**

Byung-Doo Choi\*

**Abstract** : As foreign immigrants are rapidly increasing, how they without previous knowledge and experience adjust themselves to local circumstances where they come to live becomes a major social issue. In order to analyze their adjustment process, this paper suggests a model which consists of relationships with local environment and people on the one hand, and of geographical knowledge and imagination on the other.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suggests some findings. As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their local adjustment and felt difficulties among immigration types, nationalities, and dwelling regions, foreign immigrants' policies should be devised proper for their type and characters.

**Keywords** : foreign immigrants, local accommodation, geographical knowledge, geographical imagination, mental map.

---

\*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